

## 마산 정당연설회

<싸움에서 진 소는 다시 도전하지 않는다>

마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김근태 고문이 인사드리고 갔다. 그저 그렇고 그런 정치인 중의 한사람으로 보일 줄 모르겠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온 분이 아니다. 그야말로 천근같은 무게로 살아온 분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다해 성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한때 독재가 판을 쳤던 시절이 있었다. 국민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두려워 말을 못하고 가슴 졸이고 살았던 시절에 나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아들, 딸들이 세상 걱정 없이 공부만 하는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하자는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앞으로 8년 뒤 내 아이가 대학교를 갈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었다. 불의한 권력과 맞설 것인가. 그런다면 제적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평생 취직이 안되면 폐인이 될텐데 고민했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할 것인가. 아이가 눈치보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정의요, 독재는 안 된다고 나섰다가 평생 취직 못하고 인생망치는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니 고통이 너무 크다. 자기 몸 던져, 자기 인생을 바쳐 그야말로 부당하게 억압받으면서도 고통받고 힘없는 국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정정당당하게 살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김근태, 장영달, 이호웅 의원이다. 김성진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치인으로 보지 말고, 이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달라.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 중에는 족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 죽어서 아이들 제상에 “학생부군신위“에 이름을 올리려고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정치인은 우리 모두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다. 마음 자세가 내 살림 사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똑똑한 사람 중에는 자신을 위해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함께, 모두가 함께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인생을 바치려는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

김정구 위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을 위해 못 배우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사회의 부정, 부패, 불의가 판 칠 때 그 때 말이라도 한마디했는가.

물어보라. 김성진 후보에게 물어보라. 떳떳하게 얘기 할 것이다. 겸손해서 얘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학교 때부터 정의를 위해 나섰고, 시민운동을 해 왔다. 우리의 살림을 위해 이웃과 더불어 잘살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사람이다.

김성진이 어떤 사람이나. 정치가 동서로 나누어 정책대결을 할 수 없고, 지역 간 감정싸움 때문에 올바른 인물, 정책대결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을 때, 이 정치판이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지역주의에 몸 실지 않은 노무현을 도와주어야 한

다고 했던 사람이다. 그때는 노무현이 대통령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을 때이다. “택도 없다“는 시기에 김성진 후보가 나섰다. 선견지명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김성진 후보는 역사를 새로 쓰는 선각자다. 김성진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김성진 후보가 정치권이 좋아질 것이다. 확신한다.

문제는 마산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이다. 김성진이 민주당이라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잘 돌아서지 않고 선거운동이 어렵다고 한다. 몇 가지 여쭙겠다. 마산은 3.15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를 자랑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주도한 정당이냐. 옛날 군사독재 하던 정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애쓴 정당이냐. 민주당에 최고위원이 있고, 한나라당에도 최고위원이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의 평균 재산이 8억이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평균재산이 80억이다. 평균 10배나 많다. 서민과 관계없다. 법인세 2% 깎자고 해 1%만 깎았다. 5,700억원의 세금이 줄었다.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느냐.

마산 시민 대부분이 특권층이냐. 부정부패가 판칠 때 권력주변에서 돈 모은 사람이 마산에 살고 있느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당의 임무다. 마산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우리는 한나라당이다“라고 하느냐. 이회창이 이쁘냐. 그렇게 이쁘냐. 저는 요. 최소한 군대 갔다왔고 아들도 군대 보냈다. 가족의 내력을 비교하면, 할말이 많으나 입이 더러워질까 봐 하지 않겠다. 아들, 사위, 며느리, 동생, 비서실장, 한 타스다. 누가 서민이면서 편에 있는지. 정직하게 정치했는지 명백하지 않느냐. 저는 밋고 이회창이 이쁘냐. 딱 밋고 김성진 밀어주면 된다.

한나라당에 빚진 것 없다면 마산이 특권층, 기득권이 아니라면 김성진 후보를 밀어달라. 딱 좋은데 노무현이가 김대중 대통령 양자 아니냐고 한다. 양자면 어쩔고, 아니면 어떡냐.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다. 성깔대로 살아왔다. 3당 합당 때 통일민주당 53명이 잘먹고 잘살겠다고 YS 따라갈 때도 가

지 않았다.

소신껏 정치했다. 눈치보고, 줄서고 그런 정치하지 않았다. 소신으로, 제 길을 걸으며, 남의 뒤 줄줄 따라 다니는 정치하지 않았다. 단신으로 도전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도전했다. 그리고 성공해 냈고,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제길 간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양자든 아니든 관계없다. 하고 싶은 일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것이다. 경제개혁과 다시는 IMF 오지 않도록 경제를 튼튼히 하겠다. 지난 세월 IMF 위기극복을 하는 동안 빈부격차가 많아졌다. 중산층과 서민이 허리 펼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성공되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고, 일류선진국가 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이 잘 살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영남이면 어떻고 호남이면 어떠냐. 노무현이 영남이다. 고향사람 아니냐.

아들이 군대 안간 사람과 자기 앞 돌보지 않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대결하고 있다. 서민이지만 출세해 나라와 서민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을 키워야 하는가. 김성진이다.

12월에 특권층의 대표자와 서민의 대표자와 대결한다. 월드컵보다 더 재미 있는지 모른다. 우리 아이는 93년 최전방에 군대가서 뻑뻑 기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 아니냐. 민주당에서 저를 흔든다. 꼬투리 잡아 후보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어디 좀 모시고 구경시켜드리고 싶다. 창녕, 함안에 소싸움 하는데, 모셔다 보여드리고 싶다. 싸움에서 진 소가 달라붙어 싸우려고 하는지, 진 소가 다른 소 데리고 와 달라붙는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복잡할 게 뭐 있느냐. 김성진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저를 흔들겠느냐. 민주당뿐 만 아니라 대선 까지 끝난다. 화끈하게 도와달라. 해수부장관 할 때 보니까 마산에도 불일이 많은데, 김성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일 맡겨 보내달라. 24시간 개방하겠다.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이회창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도 김정구 위원장은 전화를 마음대로 못한다. 김성진 위원장은 노무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받쳐서 밀어서 여기까지 왔다. 화끈하게 밀어달라.